

죄를용서받는제사

레위기 4장, 16장

대중 소지: 선생님, 안녕하세요? 궁금한 것이 있어요.

선생님: 우리 대중이와 소진이가 뭐가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왔을까?

대중: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?

소진: 선생님, 저도 질문이 있어요. 저는 사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어렵기만 해요. 그래서 선생님께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달라고 찾아왔어요.

선생님: 하하하!그렇구나. 잘 찾아왔다. 성막을 배우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단다.

대중: 네?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? 아!그러고 보니까 여름성경학교 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요.

소진: 선생님,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. 성막에서

어떤 일이 일어났어요?

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?

선생님: 그럼,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

잘 들어보렴.



→들: 아버지, 사람들이 성막에 많이 모여 있어요.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?

아버지: 오늘은 대 속죄일이란다.

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지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, 그것은 일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것이란다.

아들: 정말이요? 아버지, 어떻게 우리 민족의 죄와 저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.





아버지 : 우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짐승이 필요 하다다

 →들: 아!그래서 사람들이 염소를 성막으로 데리고 갔군요. 아무런 죄가 없는 염소가 죽어야만 하나요? 이 염소는 아무런 잘못 도 없는 걸요.

아버지: 그렇단다. 죄가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.

아버지와 아들은 대제사장이 어린 염소에게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옮기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번제단에서 양을 잡는 것도 보았습니다.

• 등 : 아버지!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.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싫어하시나 봐요.



아버지: 대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다.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피를 뿌린단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대제사장은 죽게 된단다.





→들: 아버지! 대제사장이 살아 있어요!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!

아버지: 그래, 그렇구나.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구나!



선생님: 자, 이제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았지?

대중: 네, 구약시대에는 저렇게 죄를 용서받았군요.

선생님: 그래, 맞아! 대중이가 구원받기 전에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나니?

대중:하하, 부끄럽지만 저희 집 강아지가 대신 죽으면 안 되냐고 물었었지요.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짐승이 대신 죽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.

선생님: 그래, 대중이가 잘 기억하고 있구나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지.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단다.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였지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주셨단다.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란다.

소진: 아! 마치 죄가 없는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,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 신 거군요.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리켜

"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" 라고 말씀하셨고요.

선생님: 맞아, 너희들 정말 말씀을 잘 들었구나.

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단다.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지.

소진: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염소가 죽을 필요가 없네요.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니까요.

선생님: 그래, 우리 소진이가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.

소진: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.

대중: 선생님, 저도 그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.

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(히브리서 9:12)

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(히브리서 10:12)



28

소진: 그런데, 선생님! 제사장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?

대중: 선생님, 저는 제사장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.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제사장이 살았던 것처럼,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?

선생님: 야! 우리 대중이는 정말 똑똑하구나. 맞아,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의인(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)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단다.

소진: 너무 기뻐요. 선생님, 저는 이제 걱정이 되지 않아요.

선생님: 소진아, 뭐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니?

소지: 이스라엘 백성은 '제사장이 살았을까, 죽었을까?' 매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?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저는 불안 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아요.

선생님: 그래, 소진아, 선생님도 기쁘단다.

대중, 소진: 선생님,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.

여러분도 두 친구처럼 구원을 받았나요?

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쓰고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세요. (간증: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)



